



AI가 인간사회에 가져올 변화는...중앙대, 24일 'AI인문학 학술대회'

(서울=뉴스1) 서한샘 기자 | 2022-06-20 17:54 송고



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

인공지능 사회

일시 2022년 6월 24일(금) 13:00-18:00
장소 비대면 (Zoom) 개최

사회 박소영(중앙대), 김바로(한국학중앙연구원), 박평종(중앙대)
개회사 이찬규(인문콘텐츠연구소 HK+사업단장)

발표 | 토론

놀이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 연구 - 김재웅(중앙대) | 이기성(중앙대)
메타버스시대 발생가능한 사회적 이슈 및 이용자 행동강령 - 이현정(중앙대) | 강지영(단국대)
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-신체들 - 김민선(가천대) | 유인혁(서울시립대)
포스트휴먼 시대의 비주체와 정동 - 공현진(남서울대) | 황선희(중앙대)
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 - 박진호(고려대) | 김태균(코탁스 대표이사)

종합토론

주최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
HK+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

후원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



중앙대는 오는 24일 '인공지능 사회'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.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대 인문한국플러스(HK+) 인문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열린다.

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변화를 조명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중앙대 HK+인문콘텐츠연구소는 포스트 휴먼 시대 인문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문·사회과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 국내에서는 유일한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기관이다.

이찬규 HK+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"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"며 "이번 학술대회는 사회, 문화, 역사, 교육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 인공지능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학술대회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HK+인문콘텐츠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